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

22. 허공을 노니는, 함허당

옛날에는 환인과 콧구멍을 쌓더니
昔與桓因築鼻空
오늘은 산승과 허공을 치네
今伴山僧解打空
쳐가고 쳐올 때 허공의 탄식
打去打來空自噫
'휴' 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
一噓噓出滿堂風

위의 선시 작가는 조선 초 무학(無學) 대사의 상족인 함허당(涵虛堂) 기화(己和)다. 일반적으로 함허 득통(得通)으로 잘 알려져 있다. 함허는 당호이고 기화는 법명이며 득통은 호다.

그의 제자 야부가 쓴 행장에 의하면 세종 2년(1420) 가을, 오대산에 들어가 여러 암자에 들려 참배하고 영감암에서 나옹선사 영정에 공양을 드리면서 이틀 간 머물렀다. 하루 저녁 꿈에 한 신령스런 이인이 나타나 스님에게 말하기를, 그대 이름은 기화이고 호는 득통이라 말했다. 절을 하고 이름을 받고 꿈에서 깨어보니 몸이 가벼워 마치 허공에 노니는 것 같았다. 다음 날 월정사에 내려와 한 방에 머물며 평생을 받쳤다 한다.

함허당은 조선 초기의 배불하는 국시에 맞서 호불(護佛)하려는 염원에서 <현정론>,<유석질의론>을 저술하였고, 또 함허가 설의한<금강경오가해>는 제방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수자들의 지침서다. 그러나 함허당의 간절한 불법의 참뜻을 이해시키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대의 대세는 어쩔 수 없었다. 그는 한 수의 게송으로 자기의 심정과 아울러 암울한 불교의 앞길을 한탄한다.

부채-허공. 허공-산승 등은 선시의 모순어법적 표현
조선시대 불교를 배척하는 국시에 대한 한탄 노래

여기 저기 불사 헌다는 소식 듣고
聞說諸方壞佛廟
어쩔 수 없이 흐르는 두 눈의 눈물
無端兩眼淚潸然
우리들 덕 없음이 부끄러울 뿐
但慙我輩都無德
감히 합장하고 정성껏 하늘에 고하네
合掌傾誠敢告天

<유감(有感)>이라는 제가 붙은 시다.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여러 측면에서 불교가 폄하되고, 절이 헐리는 상황을 맞는다. 그러나 이 울분을, 스스로 부덕의 소치로 돌려야 하는 현실을 부끄러이 여길 수밖에 없음을 노래한다.

앞 모두의 게송은 <부채>를 주제로 한 선시다. 1행과 2행에의 대구가 절묘하다. '전에는 하느님의 콧구멍을 막더니/오늘은 산승의 손에 들려 허공을 친다.' 1행과 2행 사이에 상상되는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현격하다. 그 만큼 우리를 현묘한 세계로 틈입시켜 많은 상상력을 주고 이미지를 파생케 한다. '하느님/부채', '부채/허공', '허공/산승', 이 가운데 반 쯤 졸며 '끄덕이는 노승의 머리/힘없이 떨어뜨리는 부채', 이쯤 되면 허공의 탄식이 아니라 노승 마음의 딸꾹질이다. 이들이 인연이 되어 방안은 어느덧 바람으로 일렁인다.

이것은 바로 선시가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시켜온 선시의 모순어법적인 표현이며 반상합도 된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다. 중중무진화엄법계(重重無盡華嚴法界)로 정립되는 선시가 그리는 무한실상(無限實相)의 세계이니, 곧 '하느님=부채', '부채=허공', '허공=산승', '끄덕이는 노승의 머리=힘없이 떨어뜨리는 부채'가 모두 반상합도 되어 한 빼어난 세계를 연출한다.

3행과 4행에서 "쳐가고 쳐올 때 허공의 탄식/'휴' 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"이 '어느덧 방안에 일렁이는 바람이 된다.' 놀라운 세계다. 자성이 무자성의 세계, 곧 '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므로 하느님이다.'

석가모니부처님께서 "일체의 성현이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(一切賢聖 皆而無爲法 而有差別-<금강경>제7 '無得無說分')"라고 설하신 바와 같이 일체만물이 스스로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을 갖게 된다. <금강경> 도처에 "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법입니다(所謂 佛法者 卽非佛法 是名佛法 -<금강경>제8 '依法出生分')"라고 표현하고 있다.

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22

아,
박제천 | 문학아카데미, 2007 | 값 6000원

자연과 일상에서 부처를 느끼다

1965년 <현대문학> 추천으로 등단한 박제천의 열두 번째 시집 제목은 <아,>이다. '아'는 무(無)의 산스크리트어 발음이다. '아'는 시인이 찾아낸 무자화두인 것이다. 시인은 시집 3부에 편집한 18편의 시에 '심우도'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다. 심우도는 불교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방편으로 삼는 구도자와 소에 대한 짧은 비유로 된 이야기이다.

이를테면 '대추공양-심우도'에서 화자는 "온몸에 불광을 흠뻑 낸 대추알들"에게 군침을 흘리다가 발밑을 내려다본다. 화자는 다른 풀이나 생물들도 대추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뜬다. '은하-심우도'에서는 나무를 만나 껴안으며 "내 몸 또한 저 나무의 뿌리와 수액, 나이테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"고 한다. '달마 그림-심우도'에서는 화자가 달마 그림을 수묵으로 그리며 봄밤을 꼬박 새우며 "명사산 모래울음 소리"를 듣는다.

시인은 '관음찬-심우도' 시화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러 불영사를 찾아갔던 일화를 들려준다. 불영사에서 일박을 한 시인은 아침 불영계곡에 나가 평생 "관음의 불도장"을 받게 된다. 그때의 희열을 "잠시, 아주 잠시/ 가슴 속에 회오리치던 눈보라가 개이고/ 청솔의 무수한 손가락들이 천 개의 손가락으로 보이고/ 그 끝마다 보이는 햇빛의 눈이/ 서늘한 가슴의 바닥까지 비쳐왔다"며 천수관음을 보았다고 한다. '선묘-심우도'는 부석사 선묘각에서 창작 소재를 가져온 것이다. 다음 시에서는 곳곳의 자연과 생활에서 부처와 보살을 느끼고 보는 시인의 불교관이 구체화된다.

코가 깨진 미륵보살,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문둥이보살, 얼굴마저 지워진 코고작은 돌부처, 나 몰라라 잠을 자는 기왓장보살이 모두 모이는 곳

부뚜막귀신, 대들보귀신, 뇌리뿌리귀신, 동서남북 오방신, 여기서는 모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곳

햇빛 좋은 입춘날, 눈이 부신 햇빛 거울로, 제 마음 속, 무덤 속 어둠을 불살라, 보살도 부처도 잿더미가 되고 마는 날

돌쩌귀 열고 나오는, 얼음장을 깨고 나오는, 겨우내 내린 눈을 가슴으로 껴안아 녹인 물로 가득가득 속을 채운 냉이며 달래, 움파며 승검초, 죽순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네.

-'입춘날, 운주산 빈 터에 배를 띄우고 싶다' 전문

이 시는 창작자가 직접 서술한 시화를 통해 입춘날 오래전에 다녀온 운주사를 기억하면서 쓴 시이다. 화자는 만물이 다 부처라고 한다. 돌로 만든 무생의 사물이든, 귀신 등 관념 덩어리든, 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곳곳이 물물이 부처고 보살이라는 시인의 불교관을 화자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.

시 '벌레의 집'에서 화자는 "벌레가 내 요즘 화두다"라고 한다. 화자는 자신이 살아서 남의 살을 많이 먹었으므로 죽어서는 흙속에 묻혀서 벌레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려고 하니 미안하다는 것이다. 그래서 "불목욕할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/ 나를 기다릴 벌레들 생각만 하면/ 온몸이 따끔따끔하다/ 길가다 벌레와 마주치면 얼굴도 화끈 달아오른다"고 한다.

사찰음식의 모든 것

정산 스님 산촌 대표 ·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

㉒적갓물김치

우리가 흔히 먹는 '갓'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? 갓의 야생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산지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지역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

여러 학설을 종합해 보면 지중해 지역에 야생하는 식물이 중앙아시아에서 자연교잡되어 그 결과 '갓'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

그 후 기름용으로 쓰이는 갓은 인도에서, 채소용은 중국에서 품종이 분화되었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는 갓의 재배역사가 2000년 이상인데 <예기>(BC 200년이전)에 개장이라는 품종이 있었고 <재민요술>(530년경)에는 촉계와 계자가 있는데 잎을 이용하는 촉계라는 품종은 소금절임과 건조채소로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

일본에서는 오래된 농업서적인 <본초화명>(901~923)과 <화명초>(931~938)에 갓의 기록이 있습니다.

우리나라에서 갓의 재배역사는 분명치 않지만, 중국과 일본의 재배역사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갓을 재배해 채소로 즐겨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그 중에서도 적갓은 청갓보다 더 항산화성이 높다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. 피부의 지방질이나 조직성분에 미치는 산화억제작용(피부노화 억제효능) 혜산의 산화적 공격억제작용(항 발암성) 그리고 혈액 LDL-콜레스테롤의 산화억제작용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채소용 갓은 중국에서 품종 분화
적갓은 피부 산화억제작용 등 풍부

적갓에서 우러나오는 빨간 물은 바로 이 귀한 약리와 영양소인 셈입니다. 그러므로 적갓을 소금물에 절여서 그 물을 씻어 버리면 영양소를 버리는 것이 되겠지요?

오늘은 적갓을 이용해 물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.

적갓물김치

재료 : 적갓, 소금, 무, 통깨, 생강

만드는 법

① 적갓은 씻어서 소쿠리에 담고 물기를 뺀 다음 한나절 둔다. 그러면 적갓이 숨이 죽으며 시들어진다.

② 무는 길이로 나박나박 썰고 생강은 강판에 갈아서 즙을 만들어 놓는다.

③ 소금물을 만들어 생강, 무, 적갓을 넣어두면 빨간 물이 곱게 우러난다.

④ 물이 우러나며 맛이 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먹는다.

용의크기 : 넓이 2미터, 높이 2.5미터, 길이 108미터

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**칠포 대원사 성지순례**이옵니다. (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)

신비의 상징, 길상의 상징,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,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. 용의 뱃속에 천불전,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.

사단법인 **대한불교 (禪)선종 총본산**
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: 054)261-7777 / 팩스 : 054)261-6119